

직접수사 축소·파견검사 복귀...검찰개혁 급물살 탄다

■대검이 내놓은 개혁안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즉시 복귀 등 자체 개혁안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비추면 검찰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검의 개혁안은 전날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지 1시간20분가량 지난 이날 오후 3시30분 발표했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권고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개혁안과 일치한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령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 오전에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다.

대검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하루 기량이 잔잔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개혁 저항세력’ 의심 떨치고

검찰개혁 작업 주도권 잡기

조국 수사 명분쌓기 시각도

‘서초동 훔칠’ 여론 추이 촉각

드러낼 정도였다. “검찰개혁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조 장관 수사 역시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의심은 굳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이날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준비 중이었던 방안”이라고 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구체적 개혁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고 검사의 외부파견 최소화 역시 지난해 5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이미 권고한 사항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도 작년 5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게다가 애초에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외하면 관련 개정 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키는 대부분 법무부가 쥐고 있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검사의 외부파견 파견 역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소관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체 개혁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밝힌 셈이다. 또 “인권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을 점검·개선하겠다”면서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적극 화답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특수부 폐지의 경우 부패수사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수사구조 개편과 맞물려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간판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인직수사 부서가 운용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특수부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특수부가 없는 검찰청의 인직수사 부서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도 직접수사를 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생범죄를 우선 다루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이 법무부와 별개로 조직을 꾸려 개혁작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를 각각 꾸리고 개혁방안을 따로 구상해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자체개혁안 발표가 조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초동 집회를 비롯한 여론의 방점이 검찰개혁보다는 조 장관 수사 반대에 쩌어 있었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강군·화합·극일 3색 메시지

문 대통령 수리온 타고 등장

“국군, 독립운동 뿌리둔 애국군대”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오전 영공 수호의 핵심작전기인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됐다.

대구 공군기지는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모기지가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육·해·공·해병대 병력 등 19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에 맞게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한국형 가동형기 ‘수리온’을 타고 대구 공군기지에 내린 뒤 지상에 도열한 점두부기들을 사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리온에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리온은 ‘육군 1호기’로 명명됐다.

지상장비사열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공개된 F-35A를 비롯해 공중통제기 E-737-첨단 UAV(무인정찰기), 패트리엇(PAC3)·M-SAM·현무, K-9 자주포·전투-에이태킵스 등 17종 30여 대가 참가했다. 특히 공군의 영공수호임무 수행장면이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성됐다.

전력사열을 마친 문 대통령이 중앙무대로



F-35A 주요 제원	
제조사	미국 록히드 마틴
길이 / 폭 / 높이	15.7m / 10.7m / 4.4m
승무원	1명
최대이륙중량	31.8t
최대속력	마하 1.8
항속거리	2,200km
전투행동반경	1,093km
주요 무장	공대공미사일, 함동직격탄 (JDAM), GAU-12/U 25 mm 기관포,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AGM-88하퐁, 스텔 세도우 등
대당 가격	약 1천190억원
특징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실전배치	2019년 3월 2대 한국 첫 도착, 최근 까지 모두 8대 전개됨, 2021년까지 총 40대 전력화 예정

연합뉴스

인정해 제방지휘부의 경례를 받는 순간, F-15K 4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비상했다. 이들 전투기는 20여 분 뒤 각각 통제(독도), 서해(적도), 남해(제주도)까지 초계 비행했고, 조종사들이 임무수행 상황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했다. 국방부 의장대는 ‘한반도 대행’, ‘무궁화 대행’ 등을 만들어내며 묘기에 가까운 몇

진 동작들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육·해·공군의 대규모 ‘공중전력 분열’이었다. 3대의 F-35A를 비롯해 ‘E-737’, 해상조계기 ‘P-3C’, 공중급유기 ‘KC-330’, ‘F-15K’, ‘KF-16’ 10여종 수십여 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방송인 유준상, 뮤지컬배우 엄기준, 민영기, 김법래 씨가 성악병들과 함께 특별 편곡한 군가를 제창하며 ‘공중전력 분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며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른바 ‘극일’ (克日) 메시지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방부 전통의장대는 식전 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 주제곡을 배경으로 ‘무예도보통지’ 복원 무예들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라며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靑, 檢개혁안 긍정 평가...“국민 바라는 개혁 시작이길”

고민정 대변인 공식입장 밝혀

검찰 개혁 방안 탄력 받을 듯

청와대는 1일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 스스로가 만든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체 없이 피력함에 따라 대검이 이날 밝힌 개혁 방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안을 하루 만에 대강의 열개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의 향배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

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렌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 유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최대 50만원 할인

1차 프로모션 마감임박 (~9/30까지 예약시)

동반자 할인 40만원 할인

추가 할인(4명 이상) 10만원 할인

11/9 11/16 11/23 [단 3회 출발]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 4성급 호텔 알베르케 숙박 X
-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3대도시] 9일

5일 걷기 **3,690,000원**

순례길에 집중하고 싶다면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목시아/산티아고/피니스테레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4일 걷기 **3,790,000원**

순례길을 체험하고 관광을 동시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로/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12대도시 + 프랑스 길 9일

포르투갈 8대도시 + 포르투갈 길 9일

2일 걷기 **3,890,000원**

순례길 맛보기 & 관광 집중 코스

+90유로 | 선택관광 있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단체]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참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요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외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너] 소비자 주의 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일 가산비목으로 인입되고 있습니다. ●종료구분: 일반여행업 제4678(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빌딩)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물품보험: 1589-8902 ●여행보험: 부산형/소초형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임차된 승객차 등 운송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